토요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5면)

이희승 송파구의원 잠실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찾아 지역 상권 살펴

지역 소상공인 영업환경 직접 살피며 현장 목소리 경청



송파구의회 이희승 의원(잠실본동 · 잠실2동 · 잠실7동)은 10월 12일 잠실새마을전통시장 일대 거리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구 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거리가게의 시설관리 실태와 영업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관계자와 함께 거리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물의 관리 상태와 상인들의 영업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상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관계부서와 함께 살폈다.

거리가게는 소규모 상인들의 생계가 이어지는 생활의 터전인 만큼, 시설물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시설관리와 영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봤다.

이희승 의원은 "거리가게는 상인들에게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소중한 터전"이라며 "작은 시설 불편 하나도 상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영업환경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